

광개토왕[廣開土王]

영토를 크게 넓힌 고구려의 정복 군주

374년(소수림왕 3) ~ 412년(광개토대왕 21)



광개토왕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1 개요

고구려(高句麗)의 제19대 왕이다. 22년의 재위 기간 동안 다수의 정복 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고,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2 광개토왕의 등장과 국제 정세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제18대 왕인 고국양왕(故國壤王)의 아들로 이름은 담덕(談德)이다. 중국측 기록에는 이름이 안(安)으로 기록되어 있다. 386년(고국양왕 3) 13살의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391년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관련사료](#)

광개토왕이라는 왕호는 『삼국사기』에 기재된 것이고, 그의 사후 세워진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碑)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라는 긴 왕호가 등장한다. 경주 호우총(壺杆塚)에서 발견된 고구려 호우(壺杆)에는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집안(集安) 지역 모두루묘(牟頭婁墓)에서 발견된 묵서(墨書)에는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이라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에 따라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영토를 크게 개척한 왕이라는 뜻은 상통한다.

고구려의 왕호는 대개 왕이 죽은 후 문헌 장지명을 따서 지었는데, 광개토왕부터는 생시의 업적을 반영한 왕호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광개토왕의 업적이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즉위 후 영락(永樂)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생존 시에는 '영락대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관련사료](#)

광개토왕 즉위 당시 중국 대륙은 5호 16국 시대였는데, 그중 고구려와 국경을 맞댄 나라는 선비(鮮卑) 모용씨(慕容氏)가 세운 후연(後燕)이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사이에 놓고 후연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고구려와 후연의 악연은 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342년(고국원왕 12) 후연의 전신(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연(前燕)이 고구려의 도읍인 국내성(國內城)까지 쳐들어와